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삶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HYUN

발행인: 김경삼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다음 주일(9월 3일)

교회 설립 53주년 기념 주일

및 제6차 성찬식 (1~5부)

가락 연합예배(2·3부)

교회 설립 기념 특별찬양(찬양 예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진심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어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입문 양성을 위해서 십자가 중심의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자체 교재 개발, 매년 두 차례 장학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주변 전도와 1인 전도로 모든 교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천여 명의 단기 선교사가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열방을 향해 나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충현복지관을 복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교회가 설립된 지 53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날에 성찬식(1~5부 예배 시)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의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3부에 드릴지 가락 연합예배(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양 예배 시에는 교회 설립을 기념하며 드리는 특별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고전 2:2). 그분이 배후인 십자가의 은총입니다(갈 6:14). 다음 주일이 53년의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인지 점검하고 더욱 십자가로 하나되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마 16:24).

9월 교회 일정

3일(주) 제6차 성찬식(1~5부 예배 시)	6일(수) 정기 당회(수요 2부 예배 후)
가락 연합예배(2·3부 예배 시)	10일(주) 교육훈련원 하반기 교육 개강
교회 설립 기념 특별찬양(찬양 예배 시)	13일(수) 총회 교회주변 전도(수요 1부 예배 후)
6일(수) 찬양위원회의 헌신 예배(수요 2부 예배 시)	19일(화) 교역자·장로·인수집사·권사 기도회

*오늘(27일), 제4차 학습 및 세례식이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은 갈릴릴을 오후 3시)

생명의 복음

부 흥 (시편 85:6)

목적으로 모인 거창한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정확한 의미가 아니다. 어떤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 한때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 함께 모여 있음으로 어떤 집단적인 행동 속에서 활기를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부흥이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부흥은 지금까지의 삶을 뛰어넘어 회복된 삶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백성의 삶에 깊은 은총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므로 그들을 불 일듯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따라서 부흥은 사람들의 운동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자기의 교회를 영적으로 강건케 하신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영혼들을 구원토록 하신다.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성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도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시 85:6).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대하 7:14).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행 4:31). 부흥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어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시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깊은 내면에 타오르는 진정한 빛이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생명이 사라질 밤이 오기 전, 이 낮 시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었지만 새 생명을 얻었다. 이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때 우리를 일으키셔서 나팔소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 나아가 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돌이켜 교회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흥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일어나 벨로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벨로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던 그 때를 생각하라.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했던 그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비록 우리가 부수고 상치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말로 부흥의 대미기 때문이다. “지회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진동한다. 이 진동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다. 우리는 기쁜 나뉘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불평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그것은 비겁한 모습이다. 대신에 우리는 부흥을 열망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으로 서(느 8:10).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음법을 범한 죄로 인해 슬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 땅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복음으로 풍성한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며 예수님만 믿지합시다!

(김경삼 원임목사)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1 Corinthians 11:23,24)

At His last supper, Jesus took bread from the table and said to His disciples,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v. 24). His words were clear and simple. When John the Baptist saw Jesus coming to him, his words were also very clear,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Jn. 1:29). John clearly knew that Jesus was not a goat, wolf, or any other type of lamb. Jesus also knew that the bread He held in His hand did not represent some other body or some other sacrifice, but only His body and His sacrifice. As a Christian, you need to understand clearly the meaning of Jesus' words here, so that you can sincerely come to His Table now in remembrance of Him.

Jesus is God; He is clearly God! His body encompasses the Heavenly Host! "This is My Body" does not refer to some human and ordinary body, but to the Lamb of God's body. In speaking to the Roman Church concerning the privileges of the Jewish people, Paul said, "... from whom is the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who is over all, God blessed forever. Amen."(Rom. 9:5). Jesus Christ is over all and blessed forever. 2 Corinthians 5:19 says, "namely,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God is in Christ, so whatever Christ is doing, God is doing. Christ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that means you cannot look at His words here as a nice story or good moral. This is strictly His body, and it is clearly His sacrifice for you.

Jesus died on a cross to save you from death, from the devil. Your salvation comes only through Him, not through your own good efforts,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hangs on a tree'"(Gal. 3:13). You need to be crystal clear i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the Son of God, Jesus Christ, can save you. He was crucified, so that through His blood you could become righteous and receive God's blessings, especially the blessing of life. You need to understand the amazing benefits that come to you from the cross. Right now, I hear so many people just carelessly talk about Jesus' death and their salvation. They do not really know

how much He has done for them, or what His death should mean to them.

At Communion, you emphasize and remember the body of Christ, not just your blessings. If I do a favor for a friend, I usually receive wonderful gratitude. By God's grace, Jesus gave you His body, but you do not appreciate it that much. You just want to get to heaven. You do not really care about the giver, just the gift. How sad is that? You need clearness when it comes to Communion, so that you can fully appreciate and express your gratitude to Jesus. 1 Corinthians 14:33 reminds us, "for God is not a God of confusion but of peace, as in all the churches of the saints."

Today is Communion Service, and the 53rd anniversary of our church. Please come to the Lord's Table clearly knowing how much He has done for you. If you do not understand, how can you praise and worship Him? Coming to His Table out of tradition or habit is wrong, very, very wrong. I want your faith to get stronger, and for you to emphasize your love for Jesus Christ. Do not let your faith become idle or lazy. The Holy Spirit is moving, and He never takes a vacation from growing your faith. In reference to your former manner of life, you need to lay aside the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s of deceit"(Eph. 4:22). You need to put on the new self, so that you can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which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ruth"(Eph. 4:24). Amen.

My dear friend, please wake up! Galatians 5:17 says,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 Watch yourself,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with your faith. 1 Corinthians 10:12 warns you,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that he does not fall." As you humbly join the Lord's Table today in faith, remember Jesus' words,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and take what He gives with deep and sincere thankfulness, clearly realizing how much He has sacrificed for you. 🙏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23,24)



임성관 목사

이것은 내 몸이니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은 떡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4절).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순했습니다.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들으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요한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영소나 늑대 혹은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어린 양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들린 떡이 다른 누군가의 몸이나 희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몸과 자신의 희생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자리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몸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들의 호위를 받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의 평범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앞에서 유대 민족들의 특권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롬 9:5). 예수 그리스도도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19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좋은 이야기나 훌륭한 교훈쯤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요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구원을 위한 몸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의 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13).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구원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곤 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 모르거나 주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

성찬식에 임하면서 우리는 단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조그만 도움을 베풀어도 대개는 무척 고마워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그다지 감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천국에 가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33은 우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지 아니하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니시니라.”

십자가를 통해 새 사람을 일으켜

오늘은 성찬식과 아울러 교회 설립 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이나 습관을 따라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성령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옛 사람의 구슬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좇아가기 때문입니다 (골 4:22).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은 새물게 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엡 4:24)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깨어 일어나십시오! 갈라디아서 5:17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고린도전서 10:12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히 주의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 분명히 깨닫고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

성경 속의 여인들

스바 여왕의 방문 (열왕기상 10:1)



아라비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스바(아라비아의 옛 왕국)의 통치자였던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낙타를 타고 1,930km의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들었고,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1:2). 그녀가 여호와와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아주 먼 거리와 오랜 시간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듣고서 그 현장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께서 그녀에 대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마 12:42). 하나님은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을 심판할 관례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예루살렘에 올 것을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히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루살렘까지 마나 난 길을 찾아왔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솔로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진리와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에 대해 온유했습니다.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 보고 듣기를 원했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위험한 여행도 감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지혜의 보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심과 문제와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분 아니라 천국의 지혜까지 받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고, 솔로몬은 그 질문에 대해 모두 답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워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3절). 솔로몬 왕에게 어려운 질문이 난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 같으면 주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문제와 갈등을 겪지만,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질문은 인간의 지혜 이상을 요구하는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왕의 질문은 여호와와 이름에 대한 것이었으며, 여왕은 솔로몬의 경건한 대답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경건한 지혜는 스바 여왕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에 계신 중보자입니다. 그분은 인생에서 모든 복잡하고 모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던졌던 질문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인간이 행위 없이 의로워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았는지 모릅니다. 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확신을 얻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왕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사람이 논리적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질문했을 것입니다. 여왕은 심지어 인간이 언젠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여왕은 매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통해 모든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와 가 숨겨져 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 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골 2:3).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요 그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분은 계시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그리고 그분의 성리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나다나엘이 한 번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와 보라"(요 1:46). 만약 여러분께서 주께 묻지 않으면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죄인 된 우리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나오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해답들을 어디서 얻으시겠습니까? 끔찍하고 침체된 상황을 기쁨과 영광의 삶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스바 여왕의 예루살렘 방문은 우리가 본받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녀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굳은 결심으로 땅 끝에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께 나와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께 간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바 여왕처럼 그렇게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참된 지혜의 왕께서는 바로 여기 그분의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김성원 위임목사)

참 기쁨이 넘치는

십자가 공동체, 청년 1부



송두심 (성로, 청년 1부)

우리 청년 1부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를 지향하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렘 8:8).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때,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 1부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이 넘치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1부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결혼을 앞둔 미혼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제2교 육관 4층에서 복음으로 풍성한 집회가 열립니다. 토요일 오후, 여는 청년들은 한 주간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반해 총회의 청년들은 세상의 기쁨을 찾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입니다. "이는 그 사방하시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렘 1:6). 매주 토요일 집회 시간에는 십자가에 걸린 보혈로써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한 뒤에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땅 끝을 향한 십자가 증인의 열정으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집회 후에는 팀별로 모여 주님 말씀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조별 성경 공부로 다음 날 있을 설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합니다. 이처럼 조별 성경 공부를 통해 청년들은 다른 복음의 언어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확실히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집회 후 갖는 교제의 시간은 단순한 친교가 아닌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언젠가 한 청년이 집회 시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총현교회에서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 보았는데 총현교회 같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이처럼 능력있게 살아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우선 놀랐고, 또 집회 시간에 어떤 인간적인 수단도 사용하지 않고, 찬양과 말씀만으로도 청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간증처럼, 젊은이들의 심령을 채워 줄 것은 오직 말씀뿐임을 깨닫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황에서 있음을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신한 도구로 사용됨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자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빛진 자(롬 1:14)의 심정이요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시간을 정하여 교회 주변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정해 준 교회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렘 1:8)는 주님의 명령을 좇아 청년들이 교회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구로 단기성교 사역에 힘쓰며, 십자가 복을 전하는 일에 한 청년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비라고 기도하는 것은 총현교회의 미래를 젊어질 새벽 이슬 같이 신선하고 귀한 이 청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일입니다. 우리 총회의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도구(엡 2:10)로 사용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합심으로 기도하고

매년 선교지를 향해 출발할 때마다 '이번에도 무사히 잘 해 낼 수 있을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께 기도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다. 더욱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현지 사람들이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았고, 언어 소통도 잘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우리 팀원들이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 담대히 증거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모두가 감격하며 찬송하였다.

넓은 땅, 많은 곡식 거둔 축복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창조주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신앙으로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길 소망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한용택(집사, 6교구)

연약한 몸이었지만!

저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선교에 참여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제 마음을 선교를 향한 강한 믿음을 주셨고, 주위 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더욱 많이 주님께 매달렸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선교에서 더욱 많이 체험할 수 있었다.

장시간의 비행과 차량의 이동으로 여는 때 같은데 피곤하고 힘들어서 몸도 주체하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힘이 솟고 답답함이 생겼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나의 사명감이 더욱 든든해진 것 같다.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을 가다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지고 흥분이 되었다. 어설픈 현지어

실력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녹이셨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정교도이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기도 하였지만,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안스러웠다. 그 나라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화되기를 계속 기도할 것이다.

홍현숙(권사, 7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8일(월)~ 9월 5일(월)	권사회	김영숙
8월 30일(수)~ 9월 8일(금)	1교구 7지역	전심진
8월 30일(수)~ 9월 8일(금)	13교구 7지역	양승복

선 · 교 · 일 · 기

성령님과 동행했던 행복한 날들

6월 22일(목)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 어느 집 앞에 머물게 하셨다. 문 밖에서 주인을 부르자 한 젊은 여인이 환한 미소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곁에 나와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인사도 하기 전 집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과 아이가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마친 후 함께 찬양을 불렀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의 친정은 기독교 가정이었다. 성령님은 이처럼 앞서가셔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

6월 23일(금)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 복음을 전하자 다른 할머니가 오셨고, 종년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드렸다. 젊은 부부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영접 기도까지 하고 밝은 미소로 함께 찬양을 불렀다.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그들이 꼭 귀한 밑일이 되기를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6월 24일(토)

오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졌지만 우리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점심 식사를 하러 오는 한 노녀를 만났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우리를 반기며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다. 잠시 후, 거센 바람이 불어 모래폭이 입 안으로 들어와 말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런 중에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

6월 25일(주일)

거룩한 주일이다. 아침 경전회를 드리고,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 12시 30분에 속소를 떠나 복음을 전했다. 주님은 농촌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농부와 젊은이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 농부는 두 딸의 아버지였고 기독교 신자라 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젊은 청년들은 예수님을 아직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드렸다.

6월 26일(월)

집을 정리하던 중 방 청소소를 하던 아가씨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책을 보여줬다. 참으로 반가웠다. 가까운 친척을 포함해 7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 함께 기도를 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 7, 8명의 소녀들이 영접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함께 불렀다. 속소 여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식사하던 식당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어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다.

김봉재(권사, 8교구)

6월 19일(월)

속소에 도착했다. 도착 예배를 드린 후 다음 날의 사역을 준비하는 계획을 의논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6월 20일(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축호 전도를 시작했다. 집집마다 문이 잠겨 있었고 개 짖는 소리만이 요란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쬘고 쉼 만한 나무 그늘도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중에 점심 때가 이르자 밭으로 일 나갔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마친 후 전도지를 읽게 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고 이곳 저곳에서 찬양하는 소리와 말씀 전하는 음성에서 성령이 흥민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소리를 높여 몇 번이고 귀에 익히게 전하였다.

6월 21일(수)

처음 만나는 사람부터 냉랭하게 복음을 거절했다.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에 도착하여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노인들 여러 분이 답소하고 있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마을 한 바퀴를 돌았다는 몇 사람들 영접했다. 차로 돌아오니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남녀 노인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바쁘게 밭으로 나갔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반갑게 웃으며 맞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노인이 그 마을의 촌장 같았다. 참 감사했다. 이처럼 성령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방립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돕기 위해 우리들이 찾아간 낯은 몹시 무더웠습니다. 특히 그곳의 영혼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별 관심 없이 하는 모습에 몹시 답답하였습니다. 성경학교에 임하기 전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그런 아이들을 자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 동안 주님은 '나는 얼마나 자기 부인을 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역을 하며 힘들 때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사역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때서야 비로소 주님은 그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가르치려고만 했던 나에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래에서 위로 성길 수 있게 해 주셨고, 더불어 그 동안 지치고 연약해졌던 나의 영혼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공동체 훈련을 통해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하나됨을 보게 해 주셨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하며 나왔던 노방 전도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신에 감사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엔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선생님들께 부어 주신 주님께 우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바라다 줄 때 아이들의 입에서 예수님께 대한 질문들이 나올 때에는 정말 주님은 이 어린 영혼을 역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현정(대학부)

부족함을 채워 주신 예수님



봉헌동 공부방(‘봉공방’)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철저한 계획과는 달리 우리에게 먼저 자기 부인과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사역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 불안함은 사역의 부담감, 더 나아가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봉공방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저희를 기도와 말씀 그리고 눈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예상과 달라서 놀랐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처럼 아이들이 한 걸음씩 말씀을 따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사역 갔을 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자주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도 모르게 나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복음은 우리들도 모르게 자주만 봉공방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 성경학교를 진행하기에는 모든 어린이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기에 우리들은 정말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강함을 주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미경(대학부)

내 안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

2006년 중동 3부 여름 성경학교 일 주일, 아니 한 달 동안 기다렸다. 방학 내내 학원에 다니느라 피서 한 번 가지 못한 나에게겐 정말 꿈과 같은 날이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싶었기 전에, 나는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더욱이 며칠 후에 유학을 가는 친구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야 한다는 생각 또한 많았다. 게다가 의례적으로 늘 가는 행사라는 생각에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그저 '놀러 가는 날' 정도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막상 기도원에 도착하여 준비된 일정에 움직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각각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이웃에게 전할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녁 부흥회 후에 있었던 기도 시간에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 기도가 자주 끊기어 나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참 사랑을 고백하고 나니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열어 주셨다. 정말 주 안에서 영혼의 호흡을 한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평소와 흐르지도 않은 눈물마저 흘렸다. 그 친구가 교회에 다닐 수 있다면, 그 친구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친구뿐만 아니라 주위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웃들, 외가 식구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하루 빨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나! 수련회를 단순히 피서와 같은 의미로 생각했던 이전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다. 너무나 바보 같다고 여리시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 것을 다시 한 번 기도한다.

김지윤(중동 3부)

복음으로 풍성한 우리 구역

몇 해째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올해엔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해 제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동시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말처럼 일하기 때문에 늘 하던대로 구역을 돌보아 기도만 할 뿐이었는데 모든 구역원들이 요즘 들어 더욱 활발히 신앙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특별히 금년 초 새가족부에 등록한 한 자매님을 통해 더 큰 은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구역이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지난 날 죄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다. 특히 금요 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면서 교통 체증으로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일찍 집을 나서서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 배우는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천국의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설렘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총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구역원들이 복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이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보혈의 은사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구역에 주신 은혜이기에 더욱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추수의 때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되길 항상 기도합니다.(요일 4:8).

강경진(임사, 4교구)



2006년 하반기 충현 장학생

나를 단련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태 신앙인으로 자란 저의 신앙 생활은 매우 평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수련회 등에 교박교박 참여했지만,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잔소리에 못 이겨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생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에게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 예매가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음향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1년이 넘게 고등부에서 음향 담당자로 예배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라는 생각으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고, 교만하게 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재수 기간에 저의 잘못된 생각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강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 저의 믿음은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험이 많고 생각하면서 겪은 것들, 모두 다 주님이 저를 단련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하도록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장 소중한 복음을 깨달았고,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대정(대학부)

얼마 전까지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족이 말씀 위에 세울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실 같이 가족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주님이 말하시는 저에게, 참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나의 영혼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깊이 만나서, 잠시 잠깐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만이 거처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너무 사랑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들과 가치관, 교만함, 아집, 내가 꼭 부어주고 놓지 않고 있는 나의 모든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잠 23:26). 현재 저는 대학에서 '초등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듯, 선생님들이 되어서 아이들의 영혼의 병을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잘못된 가정 교육이나 세상의 가치관들로 상처 입은 어린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경은(대학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

어느 날 모독 <주간 충현>에서 장학생 명단이 나와 있는 면을 보게 되었고 '나의 이름도 여기에 쓰여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장학생 신청을 하게 되었고 열렬한 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후 몇 주일 뒤 <주간 충현> 장학생 명단에 저의 이름이 올랐고 웬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지 그뿐이었고 그 날 이후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머릿속에 인지되지 못한 채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또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우물쭈물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웬지 내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고 어깨에 힘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음 해에는 장학생 선발 기준이 조금씩 엄격해진다는 소식에 '뭐 그런 것까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장학생, 장학금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성도님들께서 내시는 헌금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을 양성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장학금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닌 제 능력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니 예수님과 많은 성도님들께 헌금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뒤로 장학생 신청을 할 때마다 먼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더욱 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그 비전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모든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천국일꾼이 되도록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김지운(고등부)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람함이라 절경한 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찬양을 회복하면서 메달렸던 나의 심령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중심을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자격도 없는 내 안에 내주하심을 감사한다. "나의 생령 소생케됨은 성령 임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려져 주의 평강 넘치네" 찬양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생령 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땅아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죄인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하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낮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십자가의 은혜를 꼭꼭 있는 찬양을 통해 부를 때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대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한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리라 다짐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백예은(중사, 알렐루아 찬양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225	정성진	19	외선부	정재용(3)
2226	밥뽀무호	19	외선부	김형미(15)
2227	최은경	19	청년1부	이득택(3)
2228	연선진	19	청년1부	이득택(3)
2229	유옥금	9	청년1부	
2230	배갈리나	19	외선부	유미드(19)
2231	이재호	3	청년2부	임세학(19)
2232	김동현	5	청년1부	
2233	김미슬	19	고등부	김준복(9)
2234	박혜영	19	청년1부	
2235	구선영	19	청년1부	이대훈(15)
2236	노한나	19	대학부	김진영(9)
2237	이선호	19	청년2부	강 순(4)
2238	민효연	1	청년2부	강 순(4)
2239	서용욱	8	소망부	유옥자(11)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